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인치료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인치료센터 042) 220-9755



대전교구 초대 교구장 원 형근 주교는 6.25사변으로 궁핍하고 의료 환경 또한 열악해진 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들의 의료적 구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1956년 8월 '희망의원'을 개원하면서 복음적 의료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희망의원'은 얼마 후 '성모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1969년 11월 22일 '대전성모병원'으로, 1975년 9월 1일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인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이념과 사명은 가톨릭의료원의 이념 및 사명과 함께 통합되며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전인치료센터는 1996년 호스피스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5년 호스피스병동(입원형) 운영, 2006년 호스피스병동을 전인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 승격하여 현재는 자문형, 가정형도 운영하고 있으며,

'복음적 사랑'의 이념 아래 환대와 헌신으로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치료'의 사명을 수행하는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관 연혁

1996년	제1회 호스피스위원회 개최
2001년	호스피스 신설
2005년	호스피스 병동(입원형) 시작,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1차 사업 선정
2006년	호스피스병동을 전인치료센터로 명칭 변경 및 승격
2007년	국가암관리 사업 평가대회 우수상 수상
2008년	가톨릭종양의료원 이념 실천 '교육 연구 부문' 수상
2011년	대전광역시 '행복나눔미' 공모전 장려상 수상
2012년	완화의료 전문가 멘토링 기관 선정, 국가암관리 사업 평가대회 우수상 수상



2014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 실천 '정체성 부문' 수상
2015년	10년 연속 완화의료 전문기관 최우수 인증 획득
2016년	완화의료 도우미 서비스 도입
2017년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시작
2018년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시작
2020년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2022년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재	입원형 14병상 운영 중

2. 인력 및 시설 현황

직종	유형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의사		3		
간호사		12	1	1
사회복지사		2		
영적돌봄자		2		
자원봉사자		20		
요법사		5		

시설은 특실 2개, 1인실 2개, 2인실 1개, 4인실 2개로 14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임종실, 가족실, 요법실, 처치실, 간호사실, 면담실, 목욕실, 실내 정원, 화장실, 호스피스팀 사무실, 가정호스피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서비스 현황

1) 돌봄 프로그램

입원환자를 위한 웰컴기프트, 생일·축일을 위한 기념이벤트, 명절, 부활과 성탄 축하 행사, 그리고 대세 및 보례, 관면혼배와 병자성사, 추억 만들기(도자기 컵 만들기, 미니화분 만들기, 껍하

기, 손톱 매니큐어 등)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들로 환자와 가족의 심리, 영적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 따뜻한 한 상을 준비하여 가족 소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 요법 프로그램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와 환기의 시간을 위해 음악, 미술, 원예, 아로마, 상담, 이·미용, 독서 등 요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차 나눔, 마사지 봉사도 신체적 안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3) 사별가족 프로그램

사별가족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 전화, 편지, 사별 여정 안내문과 사별 일기장 발송을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별가족모임은 사별가족을 초대하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와 같은 경험을 통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위령미사나 여러 요법도 적용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홍보

매년 상반기 통증 캠페인이나 하반기 완화의료주간행사를 통해 호스피스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원내 교직원, 외부 기관, 본당 신자들에게 찾아가는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